

“環境保全運動” 어떻게 展開

日時：1985.10.7

場所：本協會 회의실

司會：안기희 教授 (本協會 研修部전임)

참석자：朴昌根 <韓國環境教育會 委員長>

玉正權 <한국화학장치(주)대표이사
기술사회 회장>

김조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事務次長>

김병태 <서울大 환경계획연구소 研究員>

오종민 <경희大 환경대학원생>



안기희：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環境問題에 있어서 環境保全범 국민운동은 우리나라가 양대제 전인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환경보전의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경문제란 것은 쏠 국가적인 문제고,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체 하나만의 운동으로선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環境保全協會」에서는 쏠 회원사의 환경보전 운동요원화라든가, 지역지도자

를 중심으로한 명예회원제도 활용, 캠페인, 사진전시회 등 다각적인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한 단체로서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느낍니다.

■ 특집 / 좌담회

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범국민운동차원에서 너 나 없이 환경보전운동에 모두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통해 물 한방울이라도 절약하는 방법, 세제를 적당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환경오염방지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안기희: 네. 아까 옥社長님이나 김次長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통된 의견은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대중에 대한 환경의식교육의 문제가 환경운동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現場에서 직접 뛰시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차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근: 결론적으로 환경보전운동도 그렇고 소비자보호운동 및 기타 여러 제반 운동 자체가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필요로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입지만 정부의 환경보전의지가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이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어프로치해서 받아들일지나 하는 의식수준의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국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등도 문제이다 보니 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사항이 상당히 수준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운동이 他國에 비해 약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조직적이며 역동적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정부의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안기희: 환경문제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볼 때 손해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익을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사장님께서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인 반면 환경관리기술사會長님의 자격으로도 참석하셨는데, 사실 환경문제는 기술적인 역할로도 해결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기술사들의 역할 내지는 배출시설관리인의 처우개선 또는 문제점에 관해 정당한 권리요구랄까 고충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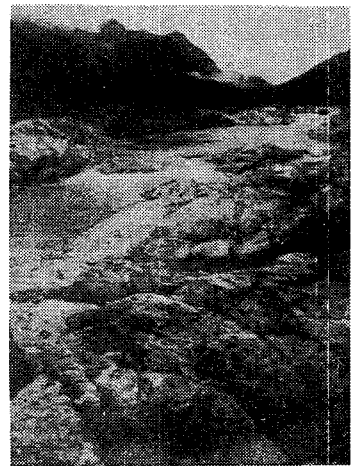
옥정권: 기술수준에 한해서는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적정수준에는 이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배출시설관리인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이 배출시설의 가동을 요구했을 때 업체 사장이 압력을 넣어 방지시설을 가동치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권리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또 방지시설기를 고용주가 쓴 기계를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 엔지니어에게는 불합리한 처사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수겠습니까만 企業主의 양심의 문제가 삽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기희: 예. 고맙습니다. 이제 좀 시각은 달리해서 서울大 환

경계 획연구소 研究員으로 계시는 김병태 研究員께서 환경교육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태: 산에가보면 자연보호운동을 하면서 나누어 주는 전단이 쓰레기가 되는 현상이 가끔 눈에 띕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연보호운동이나 환경보전운동이 연례 행사적인 장식물로 취급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형식에 치우치다보면 의미있는 운동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모자쓰고 전단돌리는 자체가 자연보호운동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지요.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 내용이 없는 운동은 설득력이 없을 뿐 더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 자체가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입니다만 걸치레에 치우친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별다른 효과를 못미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느 운동이 됐건 간에 의식수준의 강화,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교육을 받다보면 의식속에 환경을 보호

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교육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기희 : 결국 지금까지의 환경보전운동수준이 좋이나 좁은 미흡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상태라는 말씀이신데 휴지나 좁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기술수준의 강화등에 이르면 펍이나 다행이겠습니다만 그 상태에 이르자면 역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요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환경보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그 주역의 한 사람인 경희대 환경대학원 학생인 오종민 군이 나오셨는데 그간 환경보전운동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오종민 : 저희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保全코자 노력하는 것은 오늘은 사는 우리세대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오염자이건 간에 젊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 생각으로 지난 유월에 전국 환경공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경미화운동을 전개게 되었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우리가 배운 학문적 영역을 각 지역에 내려가 반상회 등을 통해 환경문제 전반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즉, 자원봉사적인 입장에서 전문인으로서 環境에 대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또 양대제전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에 비닐뻘을 나누어 준다든지, 직접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계몽을 할 계획입니다. 오염된 곳을 찍어 전시하는 사진전시회

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안기희 : 자. 이제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對策的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염의 문제는 企業人의 책임과 국민의 인식, 기술사 및 배출시설관리인의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로 한데 적어도 각 분야에서 의식을 제고키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문제등 종합적인 차원의 개선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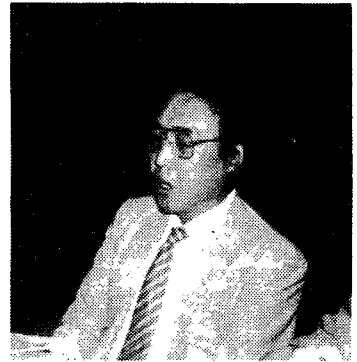
옥정권 :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말과 행동의 공통된 부분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환경보전운동자체가 나는 폐수 내보내면서 남을 타하는 것이라든지, 자기는 휴지를 버리면서 당장 남을 타하는 등의 자기기만적인 요소들이 요소 요소에 많이 內在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육적측면도 말로써, 전단으로서 매체로서의 청각이나 시각에 의존하는 단순한 작업보다는 企業人 스스로가, 국민 한사람 스스로가, 환경기술사·관리인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행동하는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김조한 : 역시 자기가 소속한 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이 물건값이나 깎는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로 부터 받고 있는데 사실은 아황산가스, 강물오염, 工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등도



〈玉正權 대표이사〉



〈박창근 委員長〉



〈김조한 事務次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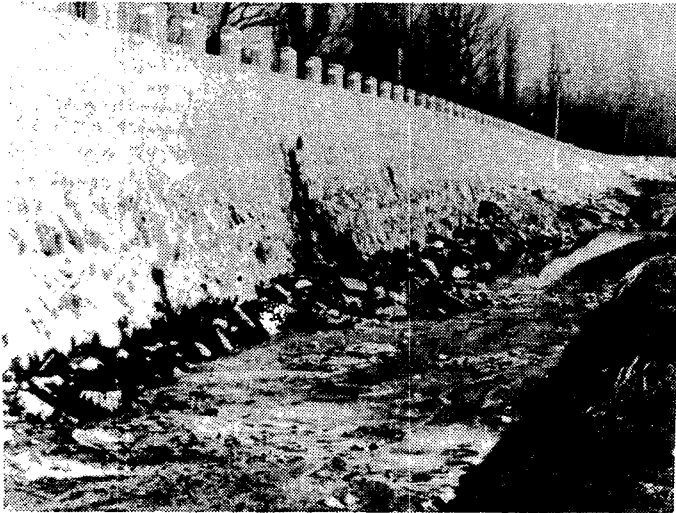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A라는 자동차가 유독성 가스제어장치가 미흡하다면 소비자적 측면에서 不買運動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염도가 발생가능한 폐기물이라든지 세제등의 적정사

■ 특집 / 좌담회

용량판매라든가, 종이팩을 이용한 용기의 제작요구 등의 운동을 압력단체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비자운동이 종합적인 방법이 못되고 물건값하나에만 치중하는 등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안기희 : 종전에 미국 용역사에 의뢰해 조사한 한강 재생을 위해 투자되는 돈이 얼마일 것이냐 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그 액수가 자그만치 4조 8천억이라



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였는데 그 오염원이 누구냐를 조사하였더니 企業은 불과 20%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가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생시키기 위한 돈은 결국 일반대중이 내야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데 이런

심각한 오염문제의 해결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듯 싶은데 이면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박창근 : 제가 과거에는 공해가 무엇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에 있어서는 공해를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과소비문제, 의식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의 문제에 있어서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비가 발생한 것이지 그에 대한 역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과소비에서 빚어지는 공해문제는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度를 지나쳐 무절제한 낭비로 인한 公害

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량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의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운동도 대량생산을 위해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서도 가동치 않는 非윤리성으로 인해 공해가 발생하니 그런 기업의



〈김병태 研究員〉

행포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익사회가 되다 보니 그런지 환경보전운동마저 이익과 결부시켜 전개됨으로 인해 낙후되고 편한것만 찾기 마련이죠. 당장의 이익이 없는 환경보전운동을 이익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일이 소비자나 생산자, 環境人, 정부 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안기희 : 선진국들은 지역개발을 할라치면 지역 주민에게 의향을 물은 후에 개발을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주민을 생각지도 않고 개발부터 한 다음 그 반대급부현상을 메꾸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찌보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이권의 문제가 아닌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절제한 지역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를 고려치 않은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요소들이라 생각합니다.

김병태 :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이나 정부가 환경의 公共財라는 의식이 희박한것 같습니다.

환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훼손시켜도 되는 것인줄로 알거

든요. 이런 문제의 개선은 교육을 통한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즉, 우리 모두의 環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더불어 기성 세대의 파괴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기희 : 네, 이제 종합해보자면 환경보전운동의 전개는 국민의 環境에 대한 公有物이라는 의식의 향상과 기업인의 양

심회복, 정부의 실효있는 정책적 입안, 국가적 제 문제와 관련된 환경문제의 효과있는 인식적 자각이 필요하다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産業社會가 안고있는 첨예한 모순인 환경오염문제는 여기계신 여러분의 실천의 문제, 또 환경인이나 국민 모두의 노력에 의한 自發的 해결의 문제라 귀걸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종민 院生〉

환경만평

그림 · 박 흥

